

사우디, 초대형 개발은행 신설 계획
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7년 1/4 분기 중, 초대형 개발은행 (Development Bank)를 신설한 계획이라고 밝혀, 사우디 내 기존 은행권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.
- 사우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, 새로 신설될 개발은행은 자본금의 70%에 해당하는 약 미화 40억불 규모의 자본을 사우디 국적 보유자에 한하여 기업공개(IPO)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, 신설은행의 나머지 지분은 사우디의 General Pension Organization 및 General Organization of Social Insurance 등이 보유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음.
- 이러한 신설은행의 자본금 규모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업 중인 약 11개의 은행들 중 가장 큰 규모이며, 자본금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위(국영은행인 National Commercial Bank) 및 2위(상업은행인 Al Rajhi Bank)인 은행의 자본금을 합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.
- 이러한 초대형의 개발은행이 탄생할 경우,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은 물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금융에서도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며, 기존의 은행들은 이러한 새로운 영업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.

- 한편, 2005년말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 이후, 기록적인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적인 호황의 과실을 누리기 위해 대규모 국제은행인 **HSBC, BNP-Paribas, Credit Suisse** 및 **EFG-Hermes** 등이 사우디 시장에 이미 진입하였는바,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우디 개발은행의 출현은 사우디 금융시장에서 수익창출 및 생존을 위한 은행들 간의 경쟁이 격심해져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(자료제공: 두바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차경진 (☎3779-6686)
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